

# 유아교육과 보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이영소장

2013년은 모든 0~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 정책이 시행된 해입니다. 더불어 기관에 다니지 않는 0~5세 영유아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2013년에 교육비·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 문제 등으로 정부와 시도청이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국민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정책의 통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이 결성되어 구체적 추진계획을 연구·실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는 2016년까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전제 하에 2014년에는 정보공시 내용 확대 및 통합, 유치원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 및 공통 적용항목 개발, 2015년에는 결제카드 통일, 시설 기준 정비 및 통합, 이용 시간,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2016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사 쳐우 격차 해소 및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의 예산지원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래 꾸준히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정책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질적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다가오는 2014년 한 해 동안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관련 단체들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행정도시 세종시에서 유보협력의 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2014년에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정부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연구소의 다양한 노력들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